

“제 낭송 경전이 점자도서관에 보내질 때 뿌듯”

김상진 불자, 가족과 시각장애인 위해 녹음봉사

“책으로 불교를 접하고 싶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김상진(55·JM음악녹음실 대표) 씨는 서울 공릉에 위치한 녹음실에서 아들인 김철웅(26·대학생)씨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녹음을 시작했다.

아들 철웅 씨는 잠시 목을 가다듬고서는 일타 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의 내용 한 줄 한 줄을 포량포량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두 부자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녹음 봉사 활동을 시작한지는 3개월, 가족들과 광림사(주지 해성)에서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청각·시각장애인 합동법회에 참여하면서부터다.

“시각장애인들은 옆에서 법요집과 경전을 읽어주는 봉사자가 있어야 법회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 그분들이 불교 경전과 불교관련 서적을 읽고 싶어도 오디오북이 부족해 읽지 못한다는 해성 스

장애인합동법회 참여하면서

시각장애인 오디오북 만들어

지난 8월부터 녹음봉사 시작

“남녀노소 누구든 참여 가능”

님의 이야기를 듣고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전국에는 점자도서관이 10여개가 있으나, 점자로 된 불교서적과 오디오북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30여 년간 녹음 엔지니어링 일을 해온 김상진 씨는 불자 시각장애인을 위해 재능기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먼저 가족들과 봉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근무 시간 외에 매일 2~3시간씩 아내와 아들, 딸이 녹음한 내용을 편집하고 다듬었다. 여기에 행복사 주지승인 스님과 해성 스님도 함께 녹음봉사에 동참했다.



김상진 씨(사진 오른쪽)와 아들인 김철웅 씨가 스튜디오에서 웃고있다.



김상진 씨 아들인 김철웅 씨가 일타 스님의 <생활 속의 기도법>을 읽고 있다.

지난 8월부터 틈틈이 작업해 만든 오디오북은 <나를 깨우고 마음을 열어주는 108 참회문> <생활 속의 천수경> <지장보살본원경> <법공양> <부모은중경> 등 총 6개, 지난 10월 31일 점자도서관에 보내졌다.

김상진 씨는 30여 년간 안치환, 조용필, 인순이, 윤정희 등 유명가수들과 녹음작업을 해온 전문가다. 축구를 즐겨하는 건장한 청년이었던 그는 고등학교 시절 근육에 힘

이 빠지는 이상증세를 느꼈다. 하지만 통증을 무시한 채 해병대에 입대하게 됐고, 점점 악화됐다.

“그때 당시에는 아파서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청년시절을 보내다 좋아하는 음악이나 더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에 일본으로 갔습니다.”

1990년대 10여 년간 일본에서 음향·녹음 엔지니어링을 공부한 김 씨는 한국어로

돌아와 유명가수들과 작업하며 명성을 쌓았다. 그러다 2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뇌병변과 근이영양증으로 지체장애 2급을 판정받았다.

“근이영양증이 근섬유가 서서히 쇠약해지고 소모되는 병이랍니다. 어릴 때 아팠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그 계기로 일본에서 녹음엔지니어링 공부까지 하게 됐고, 지금 이렇게 녹음봉사에 동참하게 됐습

니다. 제가 좋아하고 전문적으로 하는 일로 제2의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기쁘고 뿌듯합니다.”

아들 김철웅 씨도 녹음봉사를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느꼈다. 김 씨는 “불자이긴 하지만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다. 그러나 경전과 불교서적의 글자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내용이 와 닿는 것을 느꼈다며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내 목소리가 녹음된 오디오북이 점자도서관에 보내졌을 때 신기하고 기뻐했다”고 말했다.

김상진 씨는 녹음봉사 외에도 광림사에서 만난 청각장애인 부부와 교류하며 친목도 다지고 있다. 부부에게 수화를 배우고 김 씨는 불교교리를 알려준다.

김 씨는 “청각·시각장애인 합동법회에 참여하는 장애인분들의 신심 깊은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더 많은 오디오북을 제작해 점자도서관에 보내고 싶다. 하지만 봉사가 부족하다”며 “녹음봉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남녀노소 누구든 참여 가능하다. 좋아하는 불교서적을 갖고 언제든 방문해도 좋다”고 말했다. (010)3213-2466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10.27 법난, 청년 불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대불련 학생들, 법난 피해자 원행 스님과 대담



대불련 대학생 20여 명은 11월 16~17일 오대산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을 모시고 '10.27 법난 피해자 스님과의 대담'을 진행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중앙회장 박지연, 이하 대불련) 소속 학생들이 10.27 법난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하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대불련 대학생 20여 명은 11월 16~17일 오대산 월정사 부주지 원행 스님을 모시고 '10.27 법난 피해자 스님과의 대담'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10.27 법난 기념사업으로 진행되는 인문학 강연 '2013 KBUF 청춘토크파티'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대담은 월정사에서 10.27 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사무처장 도재경 서기관을 비롯한 심의위원회 담당자 및 각 지역에서 청춘토크파티 행사를 준비하는 20여명의 대학생 불자들이 참여했다.

대담에서 원행 스님은 “전국 각지의 사찰에 군인들이 난입해 당시 주지스님을 비롯해 재물을 담당하는 모든 스님을 데려가 승복을 벗겨 군복으로 갈아입히고 폭행 및 고문을 일삼았다”며 “당시 고통을 받았던 많은 스님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나를 비롯해 피해자가 몇 남지 않았는데 국가는 33

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갖은 이유를 대며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다”면서 정부의 무책임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어 스님은 “그 당시 발목을 잘못 맞아서 11월 무렵이 되면 겨울이 지나가기 전까지 발목을 비롯한 다리 통증이 심하다”고 고통을 호소하며 “역사는 항상 되풀이되는 만큼 이와 같은 비극이 불교계, 그리고 대한민국에 다시는 재발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시간을 내서 찾아와 준 대학생 불자들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하며 더 많은 관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후 학생들은 월정사 사찰순례 및 월정사 내 박물관 관람, 스님과의 대담 및

10.27법난에 대한 마음나누기 등의 시간을 진행했다.

한편 대불련은 12월 13일~25일 인도 일원에서 '대학생 불교문화교류 및 인도 불교유적 탐방'을 실시한다. '구도와 전법을 향한 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인도 탐방은 IT 몸바이 대학에서 해마다 개최하는 '무도 인디고 축제'에서 연등축제를 선보일 뿐만 아니라 IT대학 학생들과의 교류와 몸바이지역 불교활동가와의 만남의 시간 등을 통해 교류하는 시간을 갖는다. 또한 아잔타석굴과 산치대탑, 타지마할, 델리박물관 등 다양한 인도유적지를 참배 및 관람할 예정이다. 이나는 기자

동련, 어린이지도자 승가연수교육

11월 29일~12월 1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서

겨울방학을 앞두고 어린이포교 프로그램 공유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연수가 진행됐다.

사단법인 동련은 11월 29일~12월 1일 공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제56차 전국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실시한다. '햇살처럼 빛나는 행복한 어린이법회'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연수회는 조계종 교육원의 '승가연수교육 인증과정'과 '지도자연수교육'이 동시에 진행된다.

승가연수교육 인증과정은 스님 30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2박3일 동안 진행되며 이수 시 승가연수점수 30점을 받게 된다.

인증과정은 동련 이사장 심산 스님이 '2557년 어린이청소년포교를 말한다'를, 어린이청소년전법단장 성행 스님이 '어린이청소년포교 희망을 말한다'를 주제로 강연한다.

이어 조한곤 파라미터청소년연합회 사무국장이 '다양한 어린이청소년 포교 현장 사례'를 주제로 발표를 하며, 분임토의 등이 진행된다.

이나는 기자

국제포교사회, 영문 자타카 암송대회

1월 11일 예선, 본선은 1월 18일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회장 권영구)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제7회 영문 자타카(Jataka) 암송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 부처님의 전생과 가르침을 담고 있는 본생담인 자타카를 영어로 외워 발표하는 이번 대회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 증진과 더불어 영어실력 향상, 가족간의 친밀감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회 예선은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팀으로 참여 가능하며, 오는 2014년 1월11일 전법회관 3층 국제포교사회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본선은 1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12월 20일까지 참가신청이 가능하며, 대회의 원고는 국제포교사회 인터넷 카페(cafe.daum.net/IDIA)에서 초등학교 1~4학년은 A형,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3학년은 B형을 내려받아 암송하면 된다. 스님과 외국인, 국제포교사 등이 심사위원을 맡으며 표현력과 발음, 태도 등을 심사기준으로 평가한다. 이나는 기자

사단법인 대불, 2014년도 장학생 선발

12월 2일까지 사무국 접수

사단법인 대불(이사장 원우자)은 대학생활자 육성과 대학 포교 활성화를 위해 대불장학생을 선발한다.

대불장학생 선발은 대불련 중앙본부 임원과 대불련 회원에게 100만원씩을 수여하는 일반장학금부문과 대불련 지부 또는 지회에 100만원씩 수여하는 단체지원금부문, 대학생불자 2명에게 600

만원씩 지원하는 시공장학금부문으로 나눠 수여한다.

장학금 수여 희망자는 12월 2일까지 소정양식의 대불장학금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대불 사무국으로 우편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과 면접전형을 거쳐 12월 16일 선발 결과를 공고하며 12월 25일 오후4시에 열리는 대불 12월 정기법회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이나는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5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학생)

기본과정(37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서,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7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칭, 관음시식, 다비시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3년 12월 5일까지

◆개강일시 : 2013년 12월 6일(금요일)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동방대학원대학교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과정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

◆ 모집 안내

학 과	전 공	과 정	인 원
문화예술콘텐츠	문자조형, 회화예술, 문화예술, 유희조형, 콘텐츠융합디자인	석사 박사	00명
불 교 문 예	불교역사·철학, 불교문학, 불교예술, 불교상담복지		
교 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사회복지, IT융합, 커뮤니케이션	석·박사통합	00명
자 연 치 유	자연치유, 최면치유, 식이양생, 운동댄스치유, 피부미용치유, 명상심리, 요가치유, 영상예술치유	연구 외국인	
미래예측경영	명리인상, 풍수지리·부동산, 주역철학, 동양고전·상장례학		

◆ 전형 일정

가. 원 서 접 수 : 2013년 12월 2일(월) ~ 12월 11일(수)

나. 전 형 일 자 : 2013년 12월 14일(토)

다. 합격자 발표 : 2013년 12월 19일(목), 본교 홈페이지

◆ 원서 접수

가. 홈 페이지 : www.dongbang.ac.kr 원서접수 바로가기

나. 방 문 접 수 : 본관 1층 교학부 9:00 ~ 16:00

다. 우 편 접 수 :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동방대학원대학교 교학부

문의 02)3668-9811,9812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292-1

